

# CASA

L I V I N G



MARCH 2007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집 프랑스 메종 라피트의 전원주택

인공적인 장식 요소는 배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프랑스 시골 마을의 에릭과 리자 부부의 집.

글과 사진 | 박성호(프랑스 통산원)

maison à Maisons Laffitte

02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에릭 리자 부부의 집 전경. 전형적인 프랑스 전원 마을의 분위기에 잘 어울리면서도 현대 건축의 개성을 잃지 않은 모습이다. 뒷마당에서 보는 건물 모습. 1층 중앙의 거실, 왼쪽의 식당과 주방이 보인다. 2층의 외벽은 합성목재로 마감되었고 덧창문에도 같은 재질이 사용되어 건물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뒷마당에서 보는 건물의 야경. 투명 유리창을 사용한 1층은 완전히 외부로 오픈되고, 최소한의 창문만 있는 2층은 아담 속으로 사라진다.





2



3



## 프랑스의 하우스 트렌드

### 프랑스인이 선호하는 주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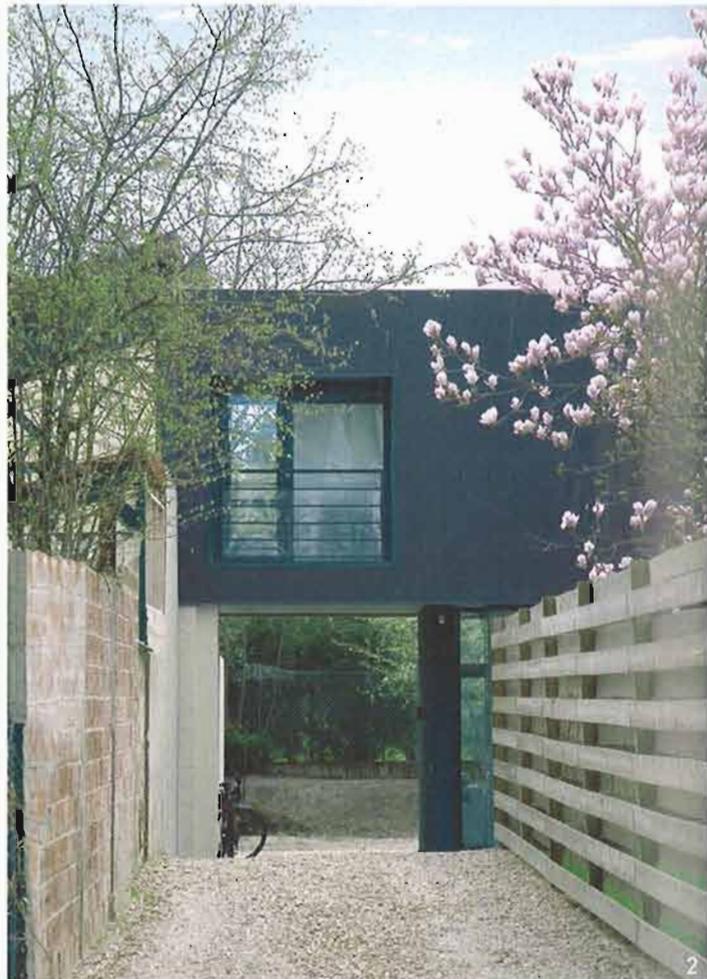
프랑스인들이 선호하는 주택 스타일을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넓은 정수, 좋은 학교, 남향집, 로열층 등의 일반적인 조건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핵가족이나 큰 집이 필요 없고, 모든 대학은 평준화에 따른 공교육이니 좋은 학교도 필요 없다. 한겨울에도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날씨라서 집이 남향이든 북향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단, 프랑스인들의 공통적인 희망이 있다면 전원의 단독주택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직장 때문에 도심에서 거주하지만, 시골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주말이나 휴가 때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집을 조금씩 보수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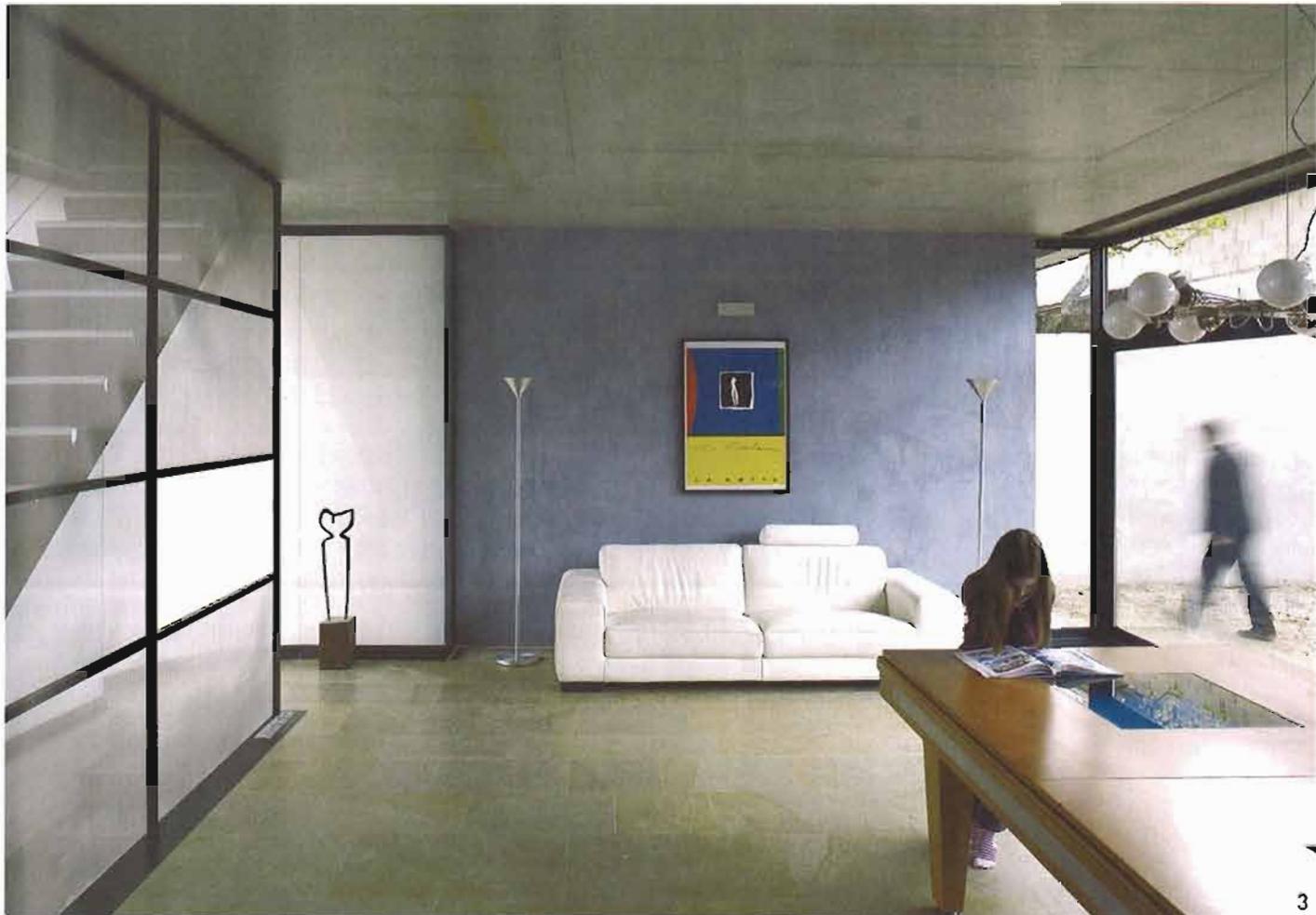
### DIY가 발달한 주거 문화

TV 시청률도 낮고 메일보다는 직접 편지를 쓰고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와인 과 바게트를 먹고 에스프레소로 입가심을 하는 프랑스인, 이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의 삶을 즐기기에 유행이나 새로운 트렌드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자기만의 취미나 개성을 존중해 집 역시 자산을 100% 표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주당 35시간의 노동과 매년 한 달 이상의 유급 휴가를 누리는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자연히 집수리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직접 자기 집을 고치고 싶어한다. 집수리용 물품이나 DIY 가구를 파는 쇼핑센터도 많고, 메종&오브제 같은 인테리어 관련 전시회가 있으면 늘 사람이 붐빌 정도로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 인기 있는 파리 근교의 전원 도시 메종 라피트

파리에서 서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전원 도시 메종 라피트는 인구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전원 도시로, 17세기의 아름다운 메종 라피트 사토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도시 엄으로 센강이 흐르고 숲과 정원 등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거주 환경이 좋으며, 파리로 출퇴근이 용이해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3

정원에서 보이는 건물 전경, 나무 상자가 연상되는 2층이 1층 위에 가볍게 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진입로에서 보는 주택 모습, 진입로를 통해 건물 1층을 통과해서 뒷마당까지 갈 수 있다. 2층 부부 침실에 있는 대형 창문은 진입로와 같은 축에 위치해 침대 머리에서 진입로가 내려다보인다. 부엌에서 거실 쪽을 바라본 모습, 좌측에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의 창문은 뒷마당으로 향한다. 칸막이 벽과 외부 창문 사이의 계단, 계단 난간으로도 사용되는 칸막이 벽은 책꽂이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프랑스에선 목욕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샤워 부스보다는 목조를 설치하는 집이 늘고 있다.



4



5

▶ 불투명 유리가 사용된 1층 창문은 낮에는 온온하게 외부의 빛을 받아 들이다가, 밤에는 내부의 빛을 외부로 투영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한편에서 창문을 통해 보는 계단과 1층 거실, 아직 짓먹이 안 부부의 막내 아이가 계단을 바다보고 있다. ▶ 2층에 있는 아이들 방, 이 집은 침대에 앉아서도 밖을 내다보기 쉽게 설계되었다. ▶ 1층 계단은 얇은 금속판으로 만들어져서 경쾌함을 강조했다. 얇은 금속판을 사용한 반투명 칸막이 벽과 외부 창문에 쓰인 불투명 불투명 유리가 겹쳐 보 이면서 원근감이 모호해지는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 전형적인 프랑스 전원 마을 속에서 조용히 개성을 드러내는 에릭과 리자 부부의 집

고풍스러운 도시 파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식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찾아보기 힘든 편이다. 프랑스인들은 공동 주택이나 고층 아파트를 기피하기 때문에 6~7층 정도 높이의, 지어진 지 50~1백 년 정도 된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1970년대 드골 대통령 시기, '전후 30년간의 경제 성장' 정책 덕분에 1가구 1주택, 자가용, 유급 휴가 등이 보편화되면서 현대화된 주택 스타일이 유행했다. 상류층을 겨냥해 실내수영장, 사우나,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 등을 갖춘 고층 아파트들이 센강 주변에 건설되기도 했지만 유행도 잠시뿐, 아파트의 답답함을 참지 못한 주민들은 다시 단독주택을 찾아 떠났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이민 노동자들이 채웠다. 그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고층 아파트들이 생겨났지만 별 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층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저밀도의 2~3층짜리 저층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파리 근교의 전원 도시로 눈을 돌린다. 파리 시내의 집값도 비싸고 개축에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메종 라피트는 전형적인 프랑스 시골의 전원 풍경을 자랑한다. 도시의 대부분이 40~5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고, 신축을 하더라도 주변 건물과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는 건축 지침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지붕은 뾰족한 삼각형 기와지붕으로, 외벽은 벽돌이나 돌을 사용해야 한다. 세 자녀를 둔 에릭과 리자 부부는 메종 라피트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모더니즘을 선호하고 일본의 미니멀한 건축에 관심이 많은 이 부부는 인공적인 장식 요소는 배제하면서 현대 건축의 개성은 살린 주택을 원했다. 프랑스인들은 집에 관심이 많고 아는 것도 많아 건축가에게 일을 맡길 때도 상당히 까다롭고 꼼꼼하게 주문하는 편이다. 시공을 맡은 건축가는 부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전원 풍경에 어울리면서도 현대 건축의 개성이 드러난 주택을 설계했다. 단순한 매스를 조합하면서 다양한 재료와 색상을 적용해 바라보는 각도, 낮과 밤의 빛이 변화함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주변의 풍경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건물 내외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도 돋보인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의 집은 대지 중앙에 설계해 앞마당과 뒷마당, 두 개의 정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하에는 창고와 와인 보관소가 있고,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친구나 가족이 묵을 수 있는 별도의 손님방이 있다. 식사 때 일상적으로 와인을 즐기는 프랑스인들은 지하실에 와인 보관소를 두고 적게는 수십 병, 많게는 수백 병을 저장해 둔다. 지하실은 1년 내내 온도와 습도가 일정해 별도의 와인셀러 없이 선반만 설치해서 와인을 잔뜩 쌓아둘 수 있다. 보관할 때 화이트와인은 온도가 낮은 아래쪽에, 레드와인은 위쪽에 보관하고 다른 냄새가 와인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약품이나 채소 등은 별도로 저장한다.

2층에는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침실 2개가 있다. 설계할 때부터 침대 머리맡에 창문이 배치되도록 침대 위치를 고려해 밖을 내다보기 쉽게 만들었다. 특이한 것은 욕실은 부부용과 아이들용으로 2개를 마련한 데 비해 화장실은 공용으로 한 층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프랑스인들은 침실 옆에 화장실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 편이고 필요한 숫자 이상의 화장실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욕실은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며 피로와 긴장을 푸는 나만의 공간이므로 여러 개를 설치하는 편이다. 예전에는 욕조 없이 샤워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목욕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노베이션할 때 사우나나 스파 시설을 설치하는 집이 점점 늘고 있다.

이 집은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적어 보이는데, 이는 가구를 모두 빌트인 방식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이다. 건축가는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가구를 벽이나 계단 등 건물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1층 계단 칸막이 벽은 2층 난간이 되는 동시에 책꽂이로 쓰이고, 침실이나 부엌의 수납장들은 벽 속에 빌트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런 요소들은 곧 군더더기 없는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1층에는 암뒤로 유리 커튼 율을 세웠는데, 한쪽에는 우윳빛 불투명 유리를, 다른 쪽에는 투명 유리를 사용해 2층이 1층의 유리벽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디자인 및 시공 프랑크 살라마(Frank SALAMA) |salama@wanadoo.fr

## 메종 라피트의 전원주택에 사는 에릭과 리자 부부

**Q공사비가 40만유로(약 5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면 파리 시내에 있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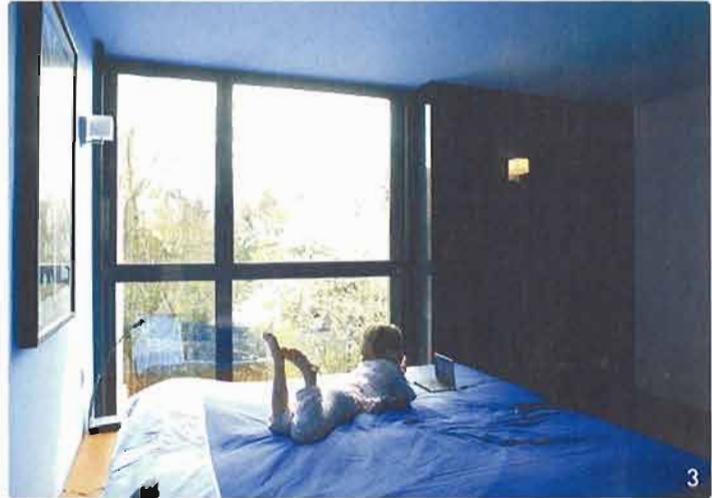
**A** 이 집에서는 도시에서 살 때와는 다르게 항상 자연 속에 있는 기분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좋다. 미당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나 집 안에서 겨울에 눈 내리는 광경을 보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아직은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나무가 어리지만 앞으로 나무가 자라면 더 쾌적한 자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Q이 주택을 완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A** 가장 어려웠던 점은 촉박한 시간이었다. 메종 라피트 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매도 하는 조건으로 두 달 안에 건축 허가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만약 두 달 안에 허가 도면을 제출하지 못하면 시정에 상당한 벌금을 물고 매입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 기존에 다른 시공업자가 이미 설계해 둔 도면이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건축가를 찾았다.

**Q나무, 돌, 노출 콘크리트, 유리 등 사용한 건축 재료가 매우 다양하다. 이런 스타일이 요즘 유행하는 프랑스 주택의 경향인가?**

**A** 단순해 보이는 건물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이 다양한 표정을 갖도록 했다. 2층이 1층의 유리벽 위에 가볍게 떠 있는 듯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1층을 투명, 반투명 유리를 사용해 시공했다. 침실의 벽과 천장도 청색 등의 원색을 주로 사용해서 개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연출했다. 프랑스에서는 특별히 유행하는 주택 스타일을 찾기 어렵다. 물론 아르데코, 피아트, 모더니즘 등의 건축 양식이 유행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유명 건축가의 작품들이고, 일반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고수한다. 햇빛이나 정원, 큰 나무 등 자연적인 요소 등은 예전부터 선호되어 왔다.



3



4